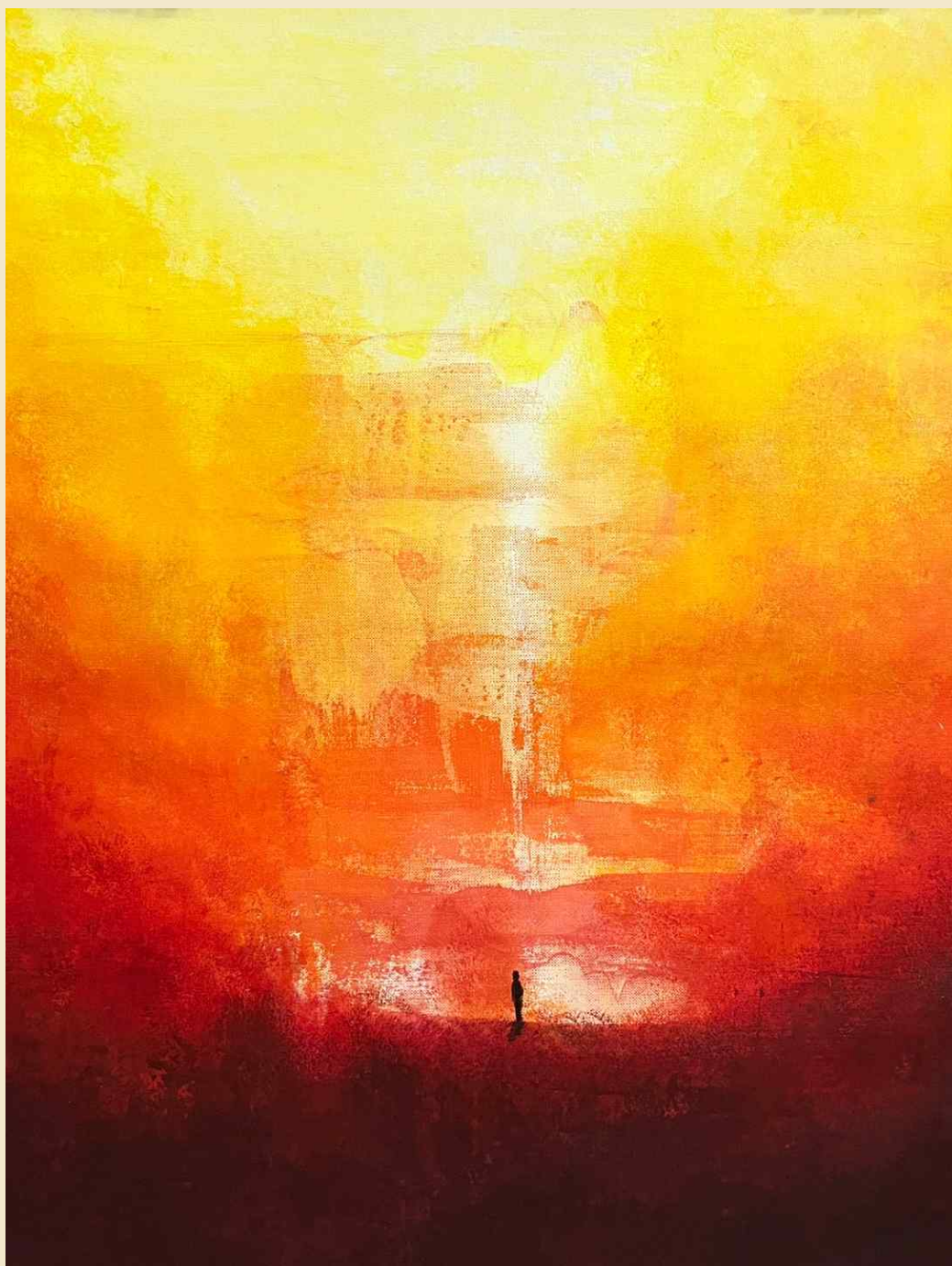


2022 **08** Vol. 386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나무의 기도



나뭇가지는
시련의 시간 흔들리는 날
의지의 줄기를 잡는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
겸손히 몸을 낮춘 줄기
뿌리에 기대어 자신의 중심을 잡는다

어두운 땅
뿌리 깊은 나무가
영원한 빛 갈망하며 기도드린다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나무의 기도
- 03 차례
- 04 강론/ 최호정(모세) 신부
십자가의 성녀 테레사 베네딕타(에디트슈타인)
- 06 성인의 시/ 이연행 옮김
하느님 아버지께
- 07 웅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주님의 기도(Ⅱ)
- 08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7)
- 12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옮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8)
- 16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39)
- 20 예수의 성녀 테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새옷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 22 선교/ 권상균(아우구스티노) 신부
중국 선교 10주년 후원 미사 강론
- 25 수방에서/ 김광서(토마스) 신부
- 26 성소/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4길
- 28 길
빛이여, 어둠이여
- 29 순례기/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13)
- 34 가르멜뜨락/ 이 스콜라스티카
Camino: A Walk with Jesus(2)
- 38 가르멜뜨락/ 박계용(도미니카)
아름פות이
- 40 가르멜뜨락/ 김순상(베로니카)
오두막
- 42 가르멜뜨락/ 반숙자(벨라멧다)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 44 가르멜뜨락/ 안병희
농부의 마음
- 45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41)
2022년 10월 영적나눔
- 49 비둘기
- 50 신간안내/ 설지인(마리아 막달레나)
하늘 신발
- 52 그림단상
(그림: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作)

표지그림

인 내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6 (2022 8.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강론 *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에디트슈타인)

기념일(8월 9일)

최호정(예수성심의 모세) 신부님/ 남가주 수도원

오늘 우리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진정한 평화와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유대인이요 철학자이며 가르멜 수녀이고 순교자인 에디트 슈타인의 기념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1독서에서 이스라엘의 딸인 에스테르가 바빌론에서 포로로 억류되어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녀가 주님이신 하느님께 드린 기도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감격을 맞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멸망의 위협이 내려 덮이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에스 4,17)

오늘 제 1독서의 에스테르가 2천 년 전에 드린 그 탄원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딸이며 여종인 에디트 슈타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곳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만행이 자행될 때에 다시 타올랐던 것입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생애에 새겨진 특별한 사명을, 훗날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딸, 에스테르의 삶의 태도에 일치시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디트는 에스테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유대 백성들을 구출한 유대의 왕후, 에스텔을 상기하게 됩니다. 나는 지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작은 에스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느님은 한없이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그리스도와 복된 십자가가 이 지상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 유일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굴욕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전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복음적 초대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영성을 통해서 살펴본 ‘십자가 신비’는 단순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포기하는 고통을 말하며, 골고타의 완전한 영적인 메마름이고 영혼의 ‘어둔 밤’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디트 슈타인은 십자가의 신비의 심오함을 단지 지성적으로만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고통에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디트 슈타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십자가 사건들을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속죄적인 행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에디트 슈타인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상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십자가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디트 슈타인은 관상적 고요함에서 십자가 신비의 심오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녀가 체험한 십자가의 삶은 하느님에 대한 앎을 깊어지게 하였으며, 온 마음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녀의 특별한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껴안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모델입니다.

1987년 4월 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의 수도회 장상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순교한 가르멜 수녀인 복녀 테레사 베네딕타는 ‘하느님의 삶에 충만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을 잊고 하느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수도생활의 근본적인 동기이고 원칙이며 목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녀 에디트 슈타인처럼 가르멜 영성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진실하고 살아 있으며 효력 있는 십자가는 언제나 현재하고 있는 어떤 것인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성녀가 사랑하고, 짊어지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고 따르며, 짊어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십자가는 물론 대단한 보속이나 엄청난 희생이 아니며 감당할 수 없는 노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의 십자가이며 규칙에 대한 준수, 형제적인 생활,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사도직 활동, 선의와 애덕과 진리와 용서와 형제애로 행하게 되는 매일의 삶 안에서 실천하고 살아

가게 되는 주님의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을 맞이해서 자신의 수도서원을 갱신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녀님들을 위해서 소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소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린양의 혼인 -1940년 9월 14일을 위하여」는 수녀원 가족을 회상하면서 썼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신·구약성경에서 언급한 희생양에 대해서 다루었고, 수녀들의 3대 서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구약 성경에서 사제는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냈고¹⁾, 그 자신과 사람들의 번제물, 사죄(死罪)를 위한 번제물을 진영 앞으로 가져왔다. 마치 어린 양이 영광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과, 고통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수반하는 선택이다.

그러므로 슈타인은 어린 양과 혼인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3대 서원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고, 이것은 보다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밀어야 하고, 망치로 내리치는 것을 인내해야 하며, 보다 깊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위대한 유다 여인이며 그리스도교 순교자

1)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불모지로 날라 간다. 이렇게 그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레위 16.22.

이면서 가르멜 수도자인 에디트 슈타인이 마지막으로 임했던 고통의 장소에, 오늘날 쇼아(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곳에 우리가 마음속으로나마 가 본다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며, 사람의 아들이요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 4, 22-24)

주님께서 우연히 마주쳤으나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에디트 슈타인의 삶 안에서, 그의 가르멜산 등정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 신비의 깊이는 침묵의 관상 안에서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녀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지식 안에서 그녀가 성장함에 따라, 성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르고, 평온하고 자신 있게 십자가를 껴안습니다. 사랑하는 정배를 따라감으로써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특별한 성소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하는 체험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 자유에 대한 우리의 헌신, 진리에 대한 우리의 추구에 있어서 늘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녀의 전구를 늘 청하면서 정성스럽게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하느님 아버지께

에디트슈타인/ 이연행 옮김

축복하세요, 고통으로 짓눌린 이들의 모욕받은 정신을, 심오한 영혼들의 무거운 고독을, 사람들의 불안한 존재를, 이웃의 영혼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고통을.

축복하세요, 모르는 길의 유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두운 열광자들의 이 무리를,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탄을 축복하세요,

착하신 하느님, 그들에게 평화롭고 지극히 행복한 종말을 주세요.

축복하세요 주님, 모든 마음들을, 특히 상처받은 마음들을, 아픈 이들에게는 위안을, 번민하는 이들에게는 평화를.

무덤 속까지 사랑을 가져가는 이들에게는 잇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마음도 죄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행복한 이들을 축복하세요, 주님.

그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지켜 주세요. 당신은 아직도 내 상복을 벗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내 피로한 어깨 위에서 가끔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힘을 주시면, 나는 속죄하며 무덤에까지 그것을 지고 갈 거예요.

나의 잠을, 모든 죽은 이들의 잠을 축복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드님이 죽음의 불안 속에서 나를 위해 견디신 고통을.

인간의 모든 비탄에 대해 자비로 가득하신 당신의 존재는, 죽은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시는군요. 당신의 평화 속에.*

* 응달샘 *

주님의 기도(Ⅱ)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수도원

지난번 주님의 기도(1)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원래 ‘네 이름’, ‘네 나라’, ‘네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반말’ 일까 봐 ‘아버지’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는 바로 네 앞에 계신 아버지여야지 저 멀리 다른 곳에 계신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는 ‘나’와 ‘너’ 즉,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너’와의 마주 바라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The bread of Life)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얻어먹으려고 가파르나움으로 찾아온 군중들에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6, 27)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성체성사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The

Living Bread)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 48-5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사성제 때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힘으로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힘으로 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자신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동물을 잡아 바친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제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 드리신 제사입니다. 이를 일컬어 갈바리아 동산의 피흘림 있으신 십자가상 제사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미사성제입니다. 피흘림 없으신 미사성제 때 제관은 예수님, 제물도 예수님이십니다. 피흘림 없으신 미사성제 때, 가톨릭 사제는 예수님을 직무적으로 대행하는 제관이고 가톨릭 신자들은 일반적인 사제직에 참여하는 사제이며 제관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 (1 베드 2, 9)이라 하셨습니다. 사제의 한 말씀으로 실체변화(實體變化)된 성체와 성혈 안에서 참으로, 실제로,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현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 때 이 성체를 청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7)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4. 동 아시아에서 가르멜의 현존

1) 중국 선교(1696)

대몽고 지역에 대한 선교가 시작된 같은 해에 4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도 파견되었다. 이들은 포교성이 그 지역에 설립한 성당과 주거지들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 이 첫 번째 그룹의 선교사들에 뒤이어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복음을 전했다. 18세기로 접어들어, 1721년 로마에서는 2명의 맨발 가르멜 수사를 특별 사절단에 포함시켜 중국에 파견한 바 있다. 이 사절단은 당시 청나라 왕실을 위한 것이다. 이 사절단은 1732년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시 이 수사들은 청나라에 남아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으며, 그 가운데 성녀 데레사의 요셉 신부가 1791년 그곳에서 임종했다. 그 후, 중국에 대한 맨발 가르멜의 선교 활동은 뜸했다. 그러다가 1947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관구가 10명의 선교사들을 중국에 파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어 혼란 중에 있었다. 베네치아 관구 출신 선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의 후베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선교 활동을 벌였다. 그곳에는 황주 교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 가르멜 수사들의 선교 활동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했으며, 공산당은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결국 선교사들은

1951년 그곳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2010년대 들어와 로마 총평의회는 중국 선교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준비했다. 총평의회는 이 선교에 적합한 아시아의 여러 관구들을 모색한 결과, 가장 적합한 관구로 대만-싱가폴 지부와 한국 관구를 염두에 두었다. 대만-싱가폴 관구의 회원 중 상당수는 중국계이므로 언어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적합한 공동체는 대만-싱가폴 지부였다. 하지만, 이 지부는 동남아시아의 4개국 출신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국 선교를 위한 단합된 힘을 모으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수가 20명 이하로, 여러 면에서 안정되지 못한 공동체였다. 반면, 한국 관구는 2009년 파티마 총회를 통해 관구로 승격되었으며, 회원 수도 대만-싱가폴 관구보다는 많은 50명 정도를 헤아린다. 또한, 총평의회는 한국이 중국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결국, 총평의회는 중국 선교를 최종적으로 한국 관구에 일임했다.

한국 관구는 중국 선교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2012년부터 양 도미니코 신부를 중국 복주 지역에 파견해서 선교를 시작했으며 중국인 성소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한국 관구로 보냈다. 한국 관구는 이들을 받아들여, 광주 수도원과 마산 수도원에서 초기 양성을 시켰다. 그러나 입회 전에 한국어를 2년이나 배워야 하고, 입회 후에 한국어로 양성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여기에 더해 광주 신학교에서 한국어로 철학,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긴 양성

기간과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에 중국 성소자들은 한국 관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한국 관구장인 윤 베네딕토 신부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싱가폴 지부를 방문해서 그곳 지부장인 존 추아 신부에게 협력을 요청, 대만-싱가폴 지부로부터 보인 대학 근교에 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도원 건물을 무상으로 인수 받아 중국 성소자들의 철학, 신학 공부를 위한 학생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학생 수도원이 위치한 타이페이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이 수도원의 설립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보인 대학교 산하 신학대학 실무자를 만나 중국 성소자들에 대한 철학, 신학 교육을 위한 협력을 얻어냈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있었던 오세아니아 관구장 회의에서 중국 성소자 양성을 위한 필리핀 관구(수련기 담당)와 대만-싱가폴 지부(청원기 담당)의 협력을 얻어냈다. 이로써 중국 선교는 한국 관구뿐만 아니라 필리핀 관구와 대만-싱가폴 지부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범 아시아적인 사도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 관구는 중국 북부의 타이위안 지역에 미래 중국 가르멜 회원들의 수도원으로 사용될 주택을 구입해서 양 도미니코 신부의 관리 아래 수도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했다. 현재 한국 관구에 소속되어 양성을 받고 있는 중국인 성소자로는 2명의 유기서원자, 1명의 청원자가 있다.

2) 대만-싱가폴

1983년 12월 9일 대만의 신주에 맨발 가르멜 수사들의 첫 번째 공동체가 세워졌다. 대만에 가르멜이 진출하게 된 것은 중국계인 존 메리 첸(John Mary Chen) 신부를 통해서였다. 그는 그 이전에 중국 대륙

에서 선교 활동에 투신했으며, 1951년 모택동 공산 정부에 의해 대륙에서 추방된 바 있다. 추방 후, 그는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 준관구에 입적해서 살았다.

그는 다양한 피정 지도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여러 곳, 예컨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자주 방문했다. 어느 날, 대만의 가르멜 수녀원의 원장 수녀가 존 메리 첸 신부에게 수녀원의 지도 신부가 되어 자신들을 동반해줄 것을 청했다. 이에 그는 필리핀 준관구 장상들의 허락을 받아 대만에 거주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가르멜 성소자들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이 사안은 로마 총본부로 보고되어, 당시 총장이던 펠리페 사인즈 데 바라다 신부가 직접 이 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총평의회에서는 공산화로 인해 실패한 중국 선교를 대만에 진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총장 신부는 대만에 파견할 회원들을 직접 물색했다. 총장 신부의 열망에 화답한 곳은 몰타 관구였다. 이들은 대만 선교를 위해 3명의 사제 회원을 파견했으며, 총장 신부는 이들을 바탕으로 정식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 후, 수사들은 대만에서 성소자들을 발굴했으며, 1988년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했다. 1990년 로마의 총평의회는 대만에 설립된 2개의 수도원을 묶어 총평의회 직속 지부로 설립했다. 이 시기 동안 대만 수도원에 입회한 성소자들 중에는 싱가포르 가르멜 수녀원의 수녀들이 발굴해서 보낸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양성을 받아 정식 회원이 된 후, 대만 지부는 1998년 싱가포르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만 지부는 대만-싱가폴 지부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이 지부에는 대만과 싱가포르 출신 성소자들 뿐만 아니라 태국과 말레이시아 출신 성소자들도 입회해서, 동남아시아 4개국

출신 회원들로 구성된 다국적 공동체로 운영되었다. 현재 이 지부에는 20명 미만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성소자들도 늘지 않고 있는데다, 지부의 범위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4개국에 걸쳐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2022년 대만-싱가폴 지부는 지부 본부 겸 수련소로 사용하던 신주 수도원과 본당을 한국 관구에 일임했다. 한국 관구는 2022년 봄에 이 수도원을 인수해서 2017년부터 사용하던 타이페이 학생수도원과 함께 관리하며 중국인 유기서원자들의 양성을 비롯해 대만에서의 선교 활동을 겸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에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도달한 것은 중국에서 선교하던 가르멜 회원들이 공산화로 인해 추방되면서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추방된 베네치아 관구의 회원들은 일본에 이시카와-나고야 선교 센터를 설립했다. 이시카와 현은 일본 중북부에 있으며 나고야 시로부터는 약 250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에는 불교의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다. 이시카와 현의 주도는 가나자와 시로, 이 도시는 대학 도시이자 관광지이기도 하다. 일본 가르멜은 나고야 시에 또 다른 2개의 수도원을 설립했다.

한편, 1952년 일본에는 롬바르디아 관구의 회원들이 선교를 위해 진출했다. 그들은 도쿄에 수도원을 세우고, 그로부터 얼마 후 교토에도 수도원을 세웠다. 이들은 일본인 성소자들을 발굴해서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베네치아 관구와 롬바르디아 관구의 회원들이 협력해서 일본 가르멜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했다. 결국, 이들의 노력으로 1978년 일본 가르멜에는 총평의회 직속 지부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500년이 넘는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도’라는 토

착 신앙으로 인해 선교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일본 가르멜 역시 성소자의 부족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가르멜 회원은 20명도 되지 않아,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

4) 필리핀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필리핀에 진출한 것은 1947년의 일이다. 당시 필리핀에 창립을 주도한 관구는 미국의 워싱턴 관구였다. 그로부터 9년 후, 영국-아일랜드 관구 역시 필리핀에 진출해서 필리핀 출신 성소자들의 양성을 위해 하로(Jaro)에 수련소를 설립했다. 필리핀에는 5개의 남자 수도원과 22개의 여자 수도원이 있다. 필리핀 가르멜은 1977년 준관구로 승격되었고, 2009년 관구로 승격되었다. 회원들은 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전하고 있다. 특히, 그들 중에 2명이 지역 교회의 주교로 서품되어 활동하고 있다.

5) 한국

남자 맨발 가르멜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가르멜은 1960년대에 부산 가르멜 수녀원의 중개로 여러 성소자들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아키텐 관구에 입회해서 양성을 받고 돌아온 정대식 플로리아노 신부, 박병해 스테파노 신부, 박태용 요한 수사와 베네치아 관구 출신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요아킴 귀초 신부가 합류해서 1974년 서울의 삼선교에 첫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76년에 첫 번째 정식 수도원인 인천 수도원이 설립되었으며, 1989년 마산의 진동에 수련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그 후, 성소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필요에 따라 다음의 수도원들이 설립

되었다: 서울 수도원 설립(1997년), 대구 수도원 설립(1999년), 남가주 수도원 설립(2001년), 광주 학생 수도원 설립(2002년), 성주 수도원 설립(2011년), 타이페이 수도원 설립(2018년). 이 가운데 대구 수도원은 지난 2019년 아시아 담당 부총장인 마리아노 신부의 사목방문 기간 중에 폐쇄 결정이 내려져, 공동체를 철수했다. 또한, 성주 수도원은 2017년부터 시험적으로 은둔 수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총평의회는 2009년 파티마 총회에서 한국 관구에 중국 선교를 일임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중국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1984년 인도의 만주멜 관구 회원들이 진출해서 가르멜의 씨앗을 뿌렸다. 인도네시아의 가르멜 회원들은 바자와(Bajawa)를 중심으로 사도직을 펼쳤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성소자들이 계발되었다. 1992년 23명의 수련자들이 첫 서원을 했다. 이러한 성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한 수도원 창립이 이루어졌다.

7) 호주

호주는 비록 아시아와는 다른 대륙에 속하지만, 총평의회에서는 호주를 동 아시아 관구들과 묶어서 통치하고 있다. 호주에 가르멜을 전파한 관구는 영국-아일랜드 관구로, 이 관구의 회원들은 1948년 핀토(Pinto)에 첫 번째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 후, 계속해서 브리즈번, 퍼스, 시드니-민토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현재 호주에는 3개의 수도원에 약 20명 정도의 가르멜 회원이 있다. 이들은 영국-아일랜드 관구 직속 지부를 구성한다. 최근에는 회원들이 노령화되고 성소자의 부재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인도, 한국 등 여러 관구에 회원들이 파견되어 공동체 운영을 위해 도와주고 있다.

제3장 아프리카 가르멜, 마다가스카르와 인도양의 가르멜

1. 16세기 콩고에서의 맨발 가르멜

16세기 당시 콩고의 여러 왕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어서 시급하게 복음화해야 할 곳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한편, 콩고의 여러 왕국은 이슬람과의 경계지역을 피해 아시아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아비시니아 왕국(현 에디오피아)에 도달하게 해주는 관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1581년 리스본에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 왕국의 영토, 그 가운데 콩고에 대한 종교적인 필요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알바로 1세가 사절들을 보내 자신의 왕국을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펠리페 2세는 그에 걸맞은 선교사 그룹으로 맨발 가르멜을 생각했다. 당시 맨발 가르멜 관구장이던 그라시안 신부는 관구의 주요 책임자들과 상의하고 무엇보다도 콩고 선교에 대한 성녀 데레사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콩고에 대한 선교사 파견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8)

마리 보댕-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이상 추구하기

의지의 힘으로 레오니는 유순해졌다. 한번은 레오니가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써 보냈다. “난 순명에 의존하고 있어. 정말이지 순명하면 여러 기적이 일어나거든. 때때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이야. 난 그러한 덕행(순명)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랑해. 왜냐하면 순명하면 반드시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바로 그 겸손이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덕행이지.”

지금도 여전히 강의 방문회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 레오니의 예전 동료들은 레오니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중으로,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로 여겼다고 이야기한다. 레오니는 공동체의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문회의 이상인 관대함, 기쁨, 겸손, 단순함을 온전히 살아냈다.

그녀의 목표는 성녀가 되는 것이었다. 레오니는 가르멜의 언니 동생 수녀들뿐 아니라 심지어 외삼촌 계령 씨에게도 다음과 같이 그러한 지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외삼촌. 그러면 전 성녀가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은 제가 충분히 성녀가 될 만큼의 재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레오니는 자신의 부족함을 평온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부족함 때문에 겪는 고통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전 열등감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다시 말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음이 극심하게 고립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했지요. 온갖 종류의 걱정거리, 혐오스러움, 짜증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정화라는 사실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전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려요.”

자아인식

레오니는 윤리적이며 지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있었다. 언니 동생 수녀들 중 한 사람에게 보낸 다음 편지에 나와 있듯이,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쉽게 놀라는지 알고 있잖아. 결국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레오니 자신)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겁쟁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다른 편지에서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피정 동안에 내가 느꼈던 열정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말았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넘어질 때, 예전처럼 낙담하게

되진 않아. 게다가 내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중에 내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 언니 동생들이 보내준 편지가 항상 적당한 바로 그때에 도착하거든... 그렇지만 사랑하는 언니 동생들 곁에, 난, 작고 가없고 보잘것 없는 이는, 대낮 바로 곁에 자리한 밤과 같을 뿐이지. 내 유일한 희망은 바로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 자주 잃어버렸던 것을 겸손함을 통해 되찾고 싶은 거야.”

자기 스스로를 “사악하다”고 한 레오니의 묘사는 분명 과장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알랑송에서 보냈던 젊은 시절의 “못된 여자애”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레오니는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형상화되게끔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마음이 여전히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 아침마다 거룩한 영성체 시간에 불을 영해요. 하지만 제 마음의 고드름은 여전히 고드름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요.”

레오니는, 비록 늘 친절하고 미소를 띠었지만, 내면으로는 어렵꽂하게나마 감지했던 (방문회의) 이상에 도달하기에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겸손함의 이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스스로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난 그런 이상에 도달하길 바라고 있지.”

간단히 말해, 레오니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고 불충실한 작은 영혼, 금욕적이지 못하며, 할 수 있는 최대한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이로 여겼다. 그녀의 세심한 자아 분석은 무자비했다. 왜냐하면 셀린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너의 레오니가 덕행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게

으르고 불충실한지 알았으면 해! 만족을 찾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 갈망 때문에 난 자꾸 반복해서 예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을 그러한 갈망에 빼앗겨버리거든. 날 위해 기도해주렴. 그래서 나 자신을 극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야. 왜냐하면 난 나약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와 같은 ‘내 탓이요’가 폴린에게 써 보낸 다음 글에도 들어있다. “언니 내가 타고나기도 했지만, 날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을 찾게끔 이끌어버리는 게으름과 소심함을 극복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얼마만큼이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지 믿지 못할 거야.

레오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판단했다. 레오니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던 이들 중에는 비올렛 카스텔 양(리지외 가르멜 수녀였던 삼위일체의 마리 수녀와 자매)이 있었다. 한번은 그녀가 다음과 같이 감탄스럽게 말했다. “전 우리가 방문하는 동안에 프랑소와 테레즈 수녀님(레오니)과 정말이지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 수녀님을 하느님 사랑에 일치하고 계신 사려 깊은 분이 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수녀님은 진짜로 작은 성녀세요. 게다가 정말 겸손하시지요! 누구나 그 수녀님을 사랑합니다!”

레오니의 자아 포기

레오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으면서 테레사의 걸음걸이로 하느님 자비에 대한 포기에로 더 깊이 나아갔다. 그녀는 오직 아버지의 다정한 포옹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했다. 아버지께서 레오니 자신을 저버리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뿐더러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 “작은 이”가 되었다. 점점 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 좋아했던 것처럼 말이다. 폴린에게 써 보낸 다음 편지에서는, “아주 작은”이라는 문구에 세 번이나 밑줄이 그어져 있다. “난 아주 작게, 정말 무척이나 작게 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당신 두 팔에 안으실 수밖에 없도록 말아야. 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해. 왜냐하면 그분께선 내가 넘어지도록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편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테레사의 작은 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인 자녀로서의 신뢰를 레오니가 자기 말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난 너무 작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어린애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거든. 난 예수님의 두 팔 안으로 떨어질 거라 희망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자비로움 그 자체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난 그분이 전혀 두렵지 않아.”

“난 너무 작아져서 그 결과 배짱 좋게도 연옥에 안 갈 거라 믿고 있지.”

“난 걷는 방법조차 모르는 아주 작은 아이 같다고 느껴. 이런 생각이 날 비참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거든. 왜냐하면 나의 무력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날 데리고 가야만 하나까.”

“난 더 이상 자아 포기할 수 없어. 난 하나님께서 내가 자아 포기하기 바라시는 그 지점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난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난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난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데다가,

너무 나약해. 하지만 난 그렇게 되는 것이 기뻐.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난 전부 태워버리고 변모시키는 그분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열려있게 되거든.” (레오니는 테레사가 자기 대모인 성심의 마리아에게 1896년 9월에 쓴 편지에서 “전부 태워버리고 변모시키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선 비록 내가 천 년을 살아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난 그저 보잘것없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난 예수님께서, 노력하는 것 말고는 그분의 비천하고 작은이(레오니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 게다가 난 결코 낙담하지 않지. 왜냐하면 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머물고 싶거든. 이런 어린애 같은 전략으로, 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한번은 레오니가 자신이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베풀어주셨던 도우심을 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어린 시절은 정말 지독했고,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가족의 품위를 손상시켰었지. 하나님께선 내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그런 말들을 반향 하듯, 폴린은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써 보냈다. “난 네 어린 시절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져. 왜냐하면 넌 평화를 어지럽히는 침입자였으니까 말아야.”

테레사의 현존

“우린 신뢰를 통해서, 오직 신뢰를 통해서만 사랑으로 인도됩니다.”라고 테레사는 1896년 9월에 글을 적었다. 레오니는 동생을 본받음으로써 자신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다. “내가 사도의 영혼이기를 얼마나 바랐는데!”라고 썼다.

하지만, 나약함의 무게를 느끼며 레오니는 곧바로 다음 문장을 덧붙였다. “나의 정화되지 않은 본성으로써는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이 어렵겠지.”

레오니는, 작은 길을 따라가면서, 이따금씩 테레사의 현존을 바로 곁에서 아주 강하게 느꼈다. 아주 일찍부터, 시복에 대한 언급이 있기 전에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레오니는 폴린에게 1902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작은 테레사가 크나큰 은총을 내가 받게끔 해주었어. 2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때 기억이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생생해. (그때) 난 아침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분심에 시달리고 있었지. 슬프게도, 대체로 그런 식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성무일도서 위로 번개가 번쩍일 정도로 빠르게 무언가 나타났어. 단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비로소 난 내가 손 하나를 보았다는 사실을 완전 깨달은 거야. 난 곧바로 이렇게 혼잣말을 했지. “작은 테레사구나. 나한테 주의를 준 거야.” 그 이후로, 난 정말 아주 많이 그 아름다운 손을 다시 볼 수 있기 바랐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지. 언니한테 내가 확신하는데, 그 일은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 그건 진짜 일어났던 일이야.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으로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사적으로 적은 메모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오니는 끊임없이 테레사에 관해 글을 적었다. “거룩한 작은 동생처럼, 하지만 더 크나큰 이유로, 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 난 그저 아주 작은 영혼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여러 글에서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난 테레사가 했던 말을 내가 한 말인 것처럼 여기고 있

어. 그 말들로 인해 난 큰 도움을 받게 되겠지. 오 예수님, 제 말들로는 당신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겸손하심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앞으로 프랑소와 페레즈 수녀(레오니)가 피정 때 했던 결심들과 관련지어 살펴보겠지만, 레오니는 심지어 테레사를 직접 수신인으로 하는 짧은 편지들을 쓰기까지 했다.

1903년 4월에, 레오니는 폴린을 만나는 크나큰 기쁨을 누렸다. 폴린과 곤자그의 마리 원장은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망디의) 라 마쉬 지역에 위치한 발로나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강에 위치한 방문회 수녀원에 들렀던 것이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레오니는 “테레사의 작은 어머니”인 폴린에게 자신의 영혼이 테레사의 가르침에 얼마나 점점 더 가까이 이끌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 폴린은 여러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레오니가 그 당시 표현대로 “성덕의 향기” 속에 세상을 떠났던 작은 가르멜 수녀의 빛을 따르면서, 얼마나 진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우리 테레사가 바로 나의 이상이야!”

얼마 후에, 폴린은 레오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편지를 써 보냈다. 레오니는 수도 공동체를 추방하는 것과 관련 있는 프랑스 정부의 1901년 법령과 더불어, 정부의 반종교 분위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 수녀들은 벨기에로 피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방문회 수녀들은 영국에로의 도피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종교 박해라고 하는 그런 큰 파도는 프랑스에서 사라졌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레오니는 평온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39)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제29장 해설(계속)

1. 반대의 극치

저자인 성녀 데레사가 본 장에서 만든 그림은 강렬하게 대조된 빛과 그림자로 혼합되어 드러난다. 성녀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영적 식별을 잘하는 영적 지도자들(프라다노스, 보르하, 알칸타라의 베드로)이 무대에서 사라졌다. 반면, 본 장의 제목에서 언급한 “커다란 은혜들”이 자라날수록 이런 종류의 은혜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아져 갔다.

고해신부들은 이상하게 바뀌어 갔다. 그리고 적어도 교대한 고해신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성녀를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그녀를 과격하고 단호하게 대했다. 성녀는 이렇듯 고통스러운 시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즉, 그는 성녀로 하여금 악마를 쫓는 주문을 하도록 부추겼으며, 주님에 대한 내적인 상(像) 앞에서 이를 악령으로 여기며 십자성호를 하도록 권하기도 했다. 또한, 십자가와 함께 그 악령을 쫓아버리게 했다. 또한, 그는 성녀로 하여금 경멸하는 비천한 제스처, 즉 검지와 장지 사이로 엄지를 보이면서 주먹을 쥐고 하는 손짓을 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녀가 홀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내적인 음성이 성녀에게 말하는 바에 따라 횡포를 부리며 흠집을 내는 행동들이다.

그에 대한 성녀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결국 저는 제게 명하신 것을 하고야 말았습니다”(5절). 성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순명했다. 또한, 성녀는 검지와 장지 사이로 엄지를 보이면서 주먹을 쥐고 하는 손짓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전율을 느껴야 했다: “저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했던 모욕에 대해 기억하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자리에 있는 분께 순명하기 위해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6절).

그러나 그들이 명한 것 가운데 성녀의 삶에서 기도를 근절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성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아무리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 해도, 저는 결코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현시가 있는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랑이 증가했으며 저는 주님께 탄식하며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7절).

여하튼, 성녀를 반대하던 영적 조언자들은 성녀로 하여금 도리에 어긋나는 가혹한 짓을 하게 했다. 이로 인해, 성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을 조롱해야 했으며, 자신의 느낌과 아주 깊은 확신을 거슬러 자신을 낮춰 천박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성녀의 반대자들은 결코 성녀의 영혼에 넘쳐흘렀던 신비스러운 물결을 멈출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성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현시에 맞서) 이렇게 시험하고 거부하도록 제게 명하기 시작하자, 그 은혜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상동).

그로부터 몇 년 후, 성녀는 이 책의 원

고를 당시 위대한 석학으로 존경받던 학자인 아빌라의 성 요한에게 보냈다. 그는 이 부분을 읽고 난 후, 성녀의 반대자들이 시켰던 손짓의 저속함을 생각하며 슬피한 바 있다: “물론, 이 경우, 그런 짓거리의 체계 혐오감을 일으키고 저를 많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1568년 9월 12일자, 아빌라의 성 요한의 편지).

2. 사랑과 갈망의 극치

본 장의 증반에서 예상치 않게 이야기의 주제와 톤이 바뀐다. 조금밖에 지각할 수 없는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추적에서 영혼의 깊은 곳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마치 새로운 주제가 제기되는 것처럼, 성녀 테레사는 사랑의 성장과 갈망이 드러내는 격렬한 충동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조금 후, 주님께서는 제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지극히 큰 사랑을 자라게 하시며,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현시가) 당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제게 그 일을 일어나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초자연적이며,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뵙고 싶은 갈망에 죽을 지경이었고, 죽음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선 어디에서 이 목숨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8절).

이처럼, 테레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갈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론적인 용어가 아닌 충격적인 용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저는 하느님을 뵙고 싶은 갈망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상동). 성녀 자신이 자 24장에서 언급하듯이, 첫 번째 황홀경을 체험한 이후, 성녀의 모든 애정은 그 징후와 방향에서 바뀌고 말았다. 이제 성녀가 신비 체험의 영역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현존은 더욱 통합되고 밀도 깊어졌으며 성녀의 영혼에 흘러 넘쳤다. 성녀는 누가 이런 사랑

을 자신에게 주입했는지, 누가 자신에게 그것을 넣어 주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빠르게 성녀를 타오르는 모닥불에 던져버리거나 화살을 “창자와 심장”의 가장 생생한 부분에 박아 넣은 것, 또는 화살이 신비스럽게 독에 묻는 것과 같다. “화살이 풀을 간직한 것처럼 보입니다”(10절).

이러한 사랑은 성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임을 감히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사랑이 오는 곳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에 대해 엄청나게 큰 사랑에서 그 안에 빠르게 불씨가 떨어져, 그를 온통 불사르는 것처럼 보입니다”(11절).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제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게서 영혼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8절).

사랑은 갈망을 제공하는 당사자이다. 성녀는 본성적으로 더욱 더 갈망하는 가운데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성적으로 어떤 것을 갈망하면, 그것을 갈망함에 있어 격렬해졌습니다”(영적보고서 53번, 54번). 이제 성녀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많이 커졌으며, 성녀는 이를 마치 “지극히 다른 격렬한 충동”, 지극히 공격적이고 강렬한 충동으로 감지했다. 이러한 충동은 성녀를 죽음의 언저리에 두었다. 전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 문자 그대로 성녀는 하느님을 보기 위해 죽고 싶었다.

매번 이 주제로 돌아가거나 성녀의 신비적인 상승 단계를 체계화하려 할 때면, 이런 격렬한 충동을 규정하거나 목록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유보되어 드러난다: “가끔 영혼에게 주어지는 원의를 격렬함(impetus)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갑작스런 기억이나 그것을 가리키는 말을 듣는 데서 옵니다.

이러한 기억은 아주 강력하며 가끔은 상당히 위력적이어서, 한 순간에 영혼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 형언할 수는 없지만, 그 영혼은 아주 깊은 고독과 온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영혼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로지 창조주만 원합니다. 그가 죽지 않는 한, 이 장막이 걷히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죽고 싶은 원의로 죽어가며 결국에는 실제로 죽음의 위협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좋을지는 모릅니다”(보고 54, 11).

성녀는 이 글을 자 29장을 쓴지 10년 후에야 썼다.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2년 후, 성녀는 『영혼의 성』에서 6궁방 마지막을 통해 영적 결혼의 전주곡인 이 격렬한 충동이 지닌 독특함을 다시 언급했다.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 “하느님이 영혼에게 내리시는 어느 욕망들, 당신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은 너무 대단하고 격렬하여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 주께서 내리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이익을 들어 말함”

성녀는 『자서전』의 이 장에서도 죽음을 위협이 아닌 구체책으로 가리키며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영혼은 하느님께 자신의 악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주십사고 청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은 죽음으로써만 자신의 보화(Bien)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2절).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이 악은 사랑의 상처(herida de amor)에서 유래한다. 성녀는 계속해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3. 화살의 은총

이 주제가 언급되는 부분은 본 장의 결말 부분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이야기, 즉 사랑의 성장 과정을 통해 사랑의 상처가 더욱 더 쌓여가며 그 마지막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 정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장 내내 성경의 아가에 나오는 고전 주제인 “당신은 제 심장에 상처를 내셨습니다”(vulnerasti cor meum)라는 구절은 상기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상처 입은 사슴에 대해 말하는 시편이 소개되고 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하느님을 그리나이다(Quemadmodum desiderat cervus ad fontes aquarum)”(시편 41, 2). 저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제 안에 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11절). 마찬가지로 성녀는 사랑의 상처와 관련된 상징들, 예컨대 화살(saeta), 불(fuego), 불꽃(centella) 등을 상기하고 있다.

성녀는 이런 상처들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 상처의 타을 금과 불로 된 화살에 돌렸다. 성녀는 천사가 이 화살을 쏘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천사는 “아주 작았지만”, “그의 얼굴은 지극히 불타오르고 있었다”(13절). 성녀는 이 천사가 쏜 금 화살이 자신의 창자와 심장을 꿰뚫었다고 말한다.

성녀 테레사에게 있어 이 상처의 은총은 ‘현시’ 중에 일어났다. 그것은 육체적인 은총이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은총이다. 성녀는 이 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했다. 성녀의 체험에 따르면, 이 은총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일이 지속되는 여러 날 동안, 저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14절). 이는 성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지만, 이와 동시에 최고의 감미로움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저 신음이 나왔습니다”(13절). 하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이것은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감미로운 사랑

의 속삭임입니다”(상동). 그래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온통 하느님에 대한 커다란 사랑 속에서 불살라지는 것 같았습니다”(상동).

성녀 테레사의 신비 체험 과정에서 화살의 은총은 일련의 사랑의 상처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성녀는 이 은총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과했다. 『자서전』에서 이 은총에 대해 말할 당시, 성녀는 이 은총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시기 즈음에, 성녀는 자신이 지은 여러 시 가운데 하나를 통해 이 은총을 상기하기도 했다(“오, 아름다움이여… / 당신은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 저를 아프게 한답니다”). 성녀는 그로부터 10년 후, 자신의 영적 보고서 가운데 하나를 통해 이 은총을 다시 언급했다(보고 54: 성녀는 여기서 이 상처를 “감미로운 고통이며 고통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영혼의 성』 6궁방에서 2번 언급했다(6궁방 2장, 11장).

제30장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의 호의적인 견해

절망과 낙담의 순간들

성녀 테레사의 무능함과 반발

제목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에 따르면, 30장은 다시금 성녀 테레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앞서 소개된 이야기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화살의 은총’은 본 이야기에 선행하는 5년 내내(1560-1565) 자주 반복되곤 했다. 또한, 성녀는 이 은총을 1560년부터 1562년 사이에 있었던 박해와 반대를 경험한 몇 년의 시기로부터 떼어놓으려 했다. 성녀는 이 2년이란 시기의 그림에 이제 그늘진 필치를 더하려 했다. 낙담과 깊은 절망의 시기는 성녀를 어두운 밤에 깊이 잠기게 했다.

앞 장과 본 장을 이어주기 위해 성녀는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의 개입을 활용했

다. 보르하의 프란치스코 신부가 “경험으로” 성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자 24, 3), 그도 역시 경험을 통해 성녀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 앞에는 ‘거룩한 신사’(자 24장에 나오는 그의 혹독한 견해를 상기하기 바란다)가 무대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성녀 테레사의 경험들을 철저히 배격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 수사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았다(6절).

이 장면의 바깥에는 여전히 글의 독자인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가 있었다. 그는 성녀로 하여금,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원고를 작성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긴급하게 요구했다.

본 장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서로 많이 교차하지 않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 수사의 개입에 관한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녀 테레사의 어두운 시기에 관해 전하고 있다. 다음은 본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스케마이다:

- 1절: 앞 장에서 소개된 주제와의 연결: “고통과 만족함이 함께”(1절).
- 2~7절: 베드로 수사의 호의적인 판단: “저는 그분이 경험으로 저를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4절).
- 7~21절: 성녀 편에서 본 기절의 요소들: 육체적인 지병들(8절), 거짓 겸손들(8~10절), 정신이 흐려짐(11~13절), 맛이 없음(13~15절), 생각하고 읽고 기도하는 데 있어 무능력함(16~18절), 미쳐 날뛰는 광인(狂人)과 같은 상상(16절), 영성체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유쾌함(14절), 겸손한 봉사들(19~20절).
- 22절: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의 새로운 개입. 성녀에게 글이 길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글을 쓰도록 간청했다.

(다음호에 계속)

*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시와 해설 *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Pues nos dais vestido nuevo...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공동체 합창>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의 임금이니,
무례한 족속에게서 지켜주소서,
이 수도복.

Todas:

Pues nos dais vestido nuevo
Rey celestial,
librad de la mala gente
este sayal.

<성녀 테레사>

십자가 모셨으니,
따님들 힘을 내시라.
빛이신 예수님께
도우심을 빌라.
당신은 이 어려운 때에
그대들의 보호자.

La Santa:

Hijas, pues tomáis la cruz,
tened valor,
y a Jesús, que es vuestra luz,
pedid favor,
El os será defensor
en trance tal.

<공동체 합창>

무례한 족속에게서 지켜주소서,
이 수도복.

Todas:

Librad de la mala gente
este sayal.

<성녀 테레사>

기도드릴 때
이 몸쓸 짐승들
신심이 여린 마음
괴롭히나니
님 향한 일편단심
한결갈거라.

La Santa:

Inquieta este mal ganado
en oración,
el ánimo mal fundado,
en devoción.
Mas en Dios el corazón
tened igual.

<공동체 합창>

무례한 족속에게서 지켜주소서,
이 수도복.

Todas:

Librad de la mala gente
este sayal.

<성녀 데레사>

죽으러 온 몸이
 무서울 것 있을손가?
 이까짓 것쯤이야
 무서울 리 없는 것.
 님께서 이 고생
 면해주시리.

<공동체 합창>

새옷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늘의 임금이지여,
 무례한 이 족속에게서 지켜주소서,
 이 수도복.

La Santa:

Pues vinisteis a morir
 no desmayéis,
 y de gente tan cevil
 no temeréis.
 Remedio en Dios hallaréis
 en tanto mal.

Todas:

Pues nos dais vestido nuevo
 Rey celestial,
 librad de la mala gente
 este sayal.

<해설>

이번에 소개하는 시는 최민순 신부님의 시집인 <님>이나 <밤>에는 실리지 않고 다만 신부님이 번역하신 <완덕의 길> 서문에서만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 신부님께서 가르멜 영성을 공부하기 위해 스페인에 가서 체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회고하시면서 특별히, 400여 년 전 그 옛날에 성녀 데레사에 얽힌 갖가지 사건과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신부님이 성녀에게 드리는 장문의 편지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글에는 성녀 데레사께 대한 신부님의 지극한 공경심이 구구절절 우리나라고 있는데, 이를테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성녀의 갖가지 성덕은 물론 성녀가 지닌 인간적인 매력과 성품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성녀를 따르며 사랑하게 하는 카리스마(특은)를 느끼게 한다.

위의 시는 당시에 수녀들이 입고 있는 수도복의 옷감이 계절의 구분도 없이 언제나 거친 모직이었는데, 이 시에 나타나는 <무례한 족속>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입고 있는 옷속에서 생겨나 후미진 곳에 숨어 살면서, 사람이나 짐승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나 벼룩 같은 기생충들을 말한다. 요즘처럼 빨래나 목욕을 자주 못 하던 그 시대에 그 성가신 놈들 때문에 기도 생활의 방해를 받던 수녀들을 위해 성녀는 순수 위의 시를 지어, 어느 날 수녀들과 함께 냄비 같은 것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광경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그런데 한 편의 재미있는 희극 같은 이런 의식을 치른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버릇없는 그 몹쓸 족속들이 순식간에 싹 없어졌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녀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또 너무 오래 지체하시지도 않고, 그때그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느님의 자비와 전능이 드러난 작은 기적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다.*

* 7월 회보 26쪽 'lua' 를 'luz' 로, 27쪽 'sielo' 를 'cielo' 로 정정합니다.

* 선교 *

중국 선교 10주년 후원 미사 강론

권상균(아기예수의 아우구스티노) 신부/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와 여행 보따리, 신발도, 때로는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고 하십니다.

이는 선교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오로지 하느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고 하십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던 민족의 입장에서 민족에 관련된 소식 또는 가족이나 친척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고 한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예수님 당시의 복음 선포의 어려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하신 것도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선교 과정 그리고 승천까지 모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7년 전 선교를 지원했고, 어느덧 대만에서의 생활도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작은 수도원이지만 신학교 부근에 가르멜 선교 수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5개월 전에는 싱가포르 지부에서 수도원을 빌려준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현재 신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신주' 라는 곳에서 3명의 싱가포르 지부의 형제와 한국 관구의 형제들 5명 총 8명의 형제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7년의 대만 생활은 학교생활과 사목 그리고 중국 형제 양성이라는 3가지 일

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본 7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순간 순간들이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체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대만에서 사목을 하면서 선교사의 체험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피소드 1

대만에는 일본 신부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일본어 미사를 6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일본어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와 전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나오신 할머니 한 분 또한 미사를 마치고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따라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90이 가까이 되신 할머니의 뒷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자성사를 주러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후, 할머니는 미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그리고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왕복 5시간 이상 걸려서 미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역시 대만에서 일본어 미사 초창기 멤버이셨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미사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대만 신부님들과 장례식에 갔지만 가톨릭이 아닌 불교 및 도교 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할머니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병자성사도 못하시고 자식들의 뜻에 따라 장례 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피소드 2

몇 년 전 3박 4일 북경에 있는 남당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당은 국제 성당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열 몇 분의 중국 신자들이 가르멜 영성을 배우고 가르멜적인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가르멜 영성"조라는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날 강의와 미사와 스카폴라 예식을 마치고 사제관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신부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 테이블 위에 삶은 계란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본당 신부님은 계란 하나를 집어 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이 계란 위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계란 밑을 보십시오. 깨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중국 신자들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영성적으로는 깨진 계란처럼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에피소드 3

중국에서 사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대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신자를 통해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중국에서 소화 데레사 수녀원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수녀님의 말씀은 "가끔씩 홍콩에서 스페인 신부님이 오셔서 가르멜 영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르멜 수녀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오면 꼭 만나고 싶고, 지금 가르멜 영적 지도 신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피소드4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대만 역시 가르멜 영성에 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신부님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만의 가톨릭 비율은 1% 정도이고 대부분 불교와 도교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관도(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혼합종교)가 대략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멜 영성에 관련된 논문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가르멜 영성에 목말라 하지만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대만의 가톨릭 종교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나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의 가난함이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있지만 신자들의 목마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중국 형제들의 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중국어를 잘 해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만 공동체는 앞으로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못자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대만에서 파종한 작은 밀알들이 앞으로 중국에서 매스미디어, 번역, 강의, 피정, 영적 지도를 통해서 15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맡을

중국인 가르멜 사제가 태어날 못자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국인 방인 사제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 역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한탄 하시면서 선교의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현재 중국의 현실 역시 종교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르멜 영성 도서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르치는 사제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언젠가 중국 형제들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가르멜 수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중국인 형제들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중국 선교를 위해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수확을 할 수 있을지 미정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도화지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선교를 지원하기 전에는 선교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선교의 어려움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고, 선교의 절박함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중국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

씀대로 일꾼이 부족한 곳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란 무엇일까?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체성에 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삶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선교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세월을 잠시 되돌아보면, 중국 선교에 관해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10여 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선교가 순탄한 길 만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만 또 한편으로는 선배 수사님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수녀님들 재속회 회원 형제자매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도움으로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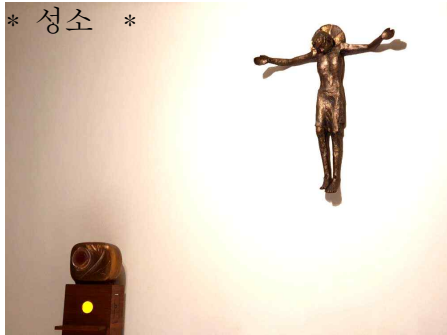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 “만만라이 (慢慢來)”는 “천천히 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행동을 천천히 하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5천 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국인의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만만라이 “ (慢慢來)의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중국 선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수방에서 *

찾있에 상처가 많아야 차가 향기를 더 많이 품고 있듯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숙하고 품격 있는 향기의 영혼이 되는지는 많은 역경과 희생의 상처를 통해 은총으로 변화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면 그것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롭게 알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은총임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꿰뚫린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보며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겸손을 청해보십시오. 마리아처럼 작고 가난한 영혼이 예수님을 품 안에 받게 됩니다. 주님평화 가득한 시간 되소서.

- 김광서(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가르멜로(路) 74-54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아무것도 당신을……

요 며칠간 곳은 날씨의 연속이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여름비가 세차게 내렸고, 그 덕분(?)에 수도원 대성당 입구 바닥 틈새로 물이 스며 들어와 쓰레받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늘상 이맘때면 일어나는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습한 날씨로 인해 수방에는 뭔가 상쾌하지 않은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비에 젖어 축 늘어진 것마냥 그저 무겁게만 느껴졌다. 더구나 후덥지근한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끈적끈적하게 땀이 흘러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하고 빨래도 자주 해야 하는, 그렇다고 빨래가 잘 마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찝찝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맞이한 오늘, 아침 햇살이 그렇게 반갑고 상쾌할 수가 없었다. 하얀 구름 낀 파아란 하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따스한 햇살 아래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까지 그 모든 것이 그렇게나 새롭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이곳저곳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 마셔보았다. 언제 비 바람이 치고 그랬었느냐는 듯싶다.

‘여름 날씨에 이렇게나 일희일비하고 있다니…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자조 섞인 푸념을 하다가, 문득 가르멜 수도회 창립자이신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께서 쓰신 다음의 시가 떠올랐다.

아무것도 당신을 걱정스럽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다 지나가버리고,
오직 하느님만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로써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인내의 효험’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인데, 날씨 하나에 이러저리 휘둘리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꼭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바람이 치는 장마 날씨가 평생 이어질 것도 아닌데... 일상의 삶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마음을 쓰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차피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갈 텐데 말이다. 왜 모든 것을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 돌아본다. 결국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묵묵히 견뎌내면 될 텐데 말이다. 언젠가 되었던 좋은 날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또한 인내심 부족은... 결과적으로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 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금 주님께 겸손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청해본다.*



빛이여, 어둠이여

너는 입을 향해 나아갔지
굽은 길 돌아 정상을 목표로...

우거진 숲들, 잔잔한 나뭇가지 솟아나 있는 바위는
너를 작은 피조물이라고 인식하게 했지
정상은 보이지 않고, 계곡에 물을 찾았네
맑은 물에 목을 축이고, 생각에 잠기네

임이 제시하신 이 길을
이 영혼의 힘으로 나아갔지만
내 안의 어둠과 맞닿아 나아갈 수 없다네
백전, 백패라고 할까!

긴 시간 동안의 투쟁
이 몸의 성장은 더 큰 싸움을 요하네
임의 도우심이 아니면, 싸움이랄 것도 없네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네

나는 기나긴 싸움, 투쟁을 통하여 영광의 임의 나라로 가길 원했지.
그것이 임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 승리의 길이라고 믿었고 확신했지
모두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야

수년간의 어둠과의 투쟁은
점점 자신이 어둠에 정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
나는 괴로웠어
어둠은 나를 넘어뜨리고, 짓밟개 버리는 거야
오늘 이 어둠은 나를 골고타로 내몰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어

나는 투쟁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해
나의 승리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 고통 중에 계신 분을 위로해 드리는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의 승리를 말이야

그러면 어둠에도 감사하겠지
괴롭고 힘들수록 그분과 같은 영혼이 되어가는 거지
“사랑하는 이가 닮아가는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돼” *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13)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베스테르보르크!

국가 간의 경계여서인지 연이어 산길을 돌아가는 도로는 무척 한적하다. 아주 잠깐, 이 불편한 길을 성녀도 흔들리며 실려 가셨나 생각을 했다. 나치의 군용차에 실려 떠날 때의 두려움과 고통의 무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신 날 밤의 예수님이 떠오른다.

한참을 달려 온 버스는 한적한 마을로 접어들기 위해 크게 유턴을 했다. 길게 쪽 뻗은 좁은 길은 버스 한 대가 겨우 드나들 만한 너비이다. 버스는 그 길을 한참 들어갔다.

버스에서 내려 키 큰 나무들이 초록으로 일렁이면서 맑은 그림자를 드리운 길을 걸어갔다. 뜻밖에도 걷고 있는 우리 곁으로 무리를 지은 많은 현지인들이 끝없는 대열로 숲으로 난 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평일 오후, 저 숲 너머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가이드 형제님의 안내를 받아 숲으로 난 길 직전에 있는 아담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입구 벽에는 네덜란드어로 이곳에 대한 설명이 운이 나는 금색 철재 판에 새겨있다.

‘베스테르보르크 캠프는 한 사람의 102,000번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형제, 자매, 아들, 딸, 조카, 친구, 연인, 이웃, 동급생... .

또한 5,000명의 생존자 이야기입니다.’

이곳을 거쳐 간 수감자들이 102,000명이었고 그 중 마지막 생존자는 5,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출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쪽 연결되어 커다란 직사각형의 낡고 오래된 여행용 가죽 가방이 일렬로 세워져 있다.

가방마다 앞에 커다란 숫자가 붙여져 있다. 제일 앞에 것은 1915년, 그리고 제일 끝, 가장 안쪽에 있는 가방은 1968년까지, 연대순으로 각기 모양과 색깔이 다른 낡은 가죽 가방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다. 가방 앞에 붙여진 커다란 흰색 종이에는
1915년 벨기에 피난민
1933년 유대인 난민의 것
1939년 베스테르보르크 중앙 난민 캠프 시설에서
1956년 헝가리 난민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1968명의 난민



모든 가방이 유대인의 것인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역사적 현실이었다. 이 가방의 주인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자국의 현실을 피해서 이곳 네덜란드까지 흘러들어온 피난민들의 가방이었다. 1915년은 1차 대전

시기, 벨기에인들은, 프랑스를 공격하려는 첫 단계로 벨기에와의 전쟁을 일으킨 독일군에 의해 전 영토가 독일에게 넘어가는 잔혹한 시절을 겪는다. 1차 대전 당시 서부 전선의 주요 전장지가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이었던 것이다.

1933년은 유대인이 히틀러를 피해 안전한 네덜란드로 이주해 와서 유대인 집성촌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시기다. 이곳 베스테르보르크가 바로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을 피해 모여들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1939년 베스테르보르크 가방이야말로 1933년부터 형성된 평화로운 유대인 난민 캠프에서, 나치 독일군의 네덜란드 침범으로 유대인 수용소로 변해버린 베스테르보르크의 현실을 반영한 가방이 된다. 1956년은 소련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과 공포 정치에 헝가리의 학생 노동자 시민이 반정부 집회를 연 해이다. 결국 실패로 끝난 이 혁명은 1956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였다. 소련은 11월 4일 헝가리에 탱크 1,000대와 15만 명의 병사로 혁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친소 정권을 세웠다.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라하의 봄’ 시기였다. 언론과 민주화는 다시 통제되었고 소련은 또다시 탱크를 앞세워 무력 진압을 하였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 가방들이 지니고 있는 난민들의 고단한 현실이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거운 마음은, 수십 년이 지난 후 우리 시대 난민들의 고통이 사진으로 전시되고 있을 미래의 그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입구를 지나 본관에 들어서자마자 실사 크기의 커다란 천에 기차에서 막 내린 유대인 남자를 찍은 흑백 사진이 공간에 서있는 듯이 연출되어 걸려 있다. 중절모를 쓰고 여행 가방을 든 채, 다른 한 손에는 벗은 재킷을

든 남자는 자신을 찍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 명예와 소유물 그리고 집,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낯선 이들에게 이끌려 가족과 나의 생사가 불분명한 곳에 막 도착한 이의 표정. 나는 마주 보고 서서 그를 찍는다. 그가 나를 쳐다본다.

여기저기서 돌아가고 있는 손바닥만 한 동영상 카메라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다. 실려 온 기차에서 막 내리고 있는 한 무리의 유대인들. 막사에서 일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들, 무성영화처럼 흑백의 화면들이 소리도 없이 반복하여 재생되고 있다.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세상이라기엔 상상하기에도 벅찬 일들이 4년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념관 벽에 장치된 유리관에는 그 당시의 메모지와 상황을 알리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1942년의 메모에는 아이들이 배급받을 음식을 먹으려고 긴 줄을 서 있다는 것과 더 적게 먹은 아이들은 때를 썼다고 적혀 있다. 그 뒤에는 배식번호표 같은 작은 종이가 포개져 있다.

중간 수용소였지만 유대인을 대대적으로 죽음으로 내몰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곳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 추위와 굶주림, 극악한 중노동과 학대로 그들은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다.

성녀가 희생될 당시는 유대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곳에서 총살을 당했고, 여성 한 명과 아이들이 실려 간 뒤, 그곳에서 전부 살해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곳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골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나치

저항군 등 정치범 수십 명이 수용되었다. 대부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이곳에 머무른 다음 동유럽 수용소로 옮겨졌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장 멀리 떨어진 아우슈비츠로, 그다음에 베르겐-벨젠 등, 여섯 군데 수용소로 분산되어 끌려갔다는 통계 자료가 벽에 지도와 함께 붙여져 있다. 그들을 더 많이 기차로 실어 나르기 위해 가족용 왜건에 접이식 의자까지 제작했다는 상세한 설명 역시 벽에 붙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나치의 선택을 받은 수감자들은 이곳의 모든 등록과 유지, 보수 등 시설을 관리했고 이 근무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죽음의 수용소행을 면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했으나 극소수만이 여기에 해당되었을 뿐이다.

1942년 10월 3일 베스테르보르크에 도착한 베르너 뢰벤이라는 사람은 드로잉을 잘하는 자신의 재능 덕분에 캠프 일러스트레이터로 이곳 통계청에서 일하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동쪽 수용소로 포로들을 분산시키는 도표를 그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감자들에게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었고 사실 이곳은 공포와 죽음이 오가는 장소일 뿐이었다.

2차 전쟁이 끝나고 20여 년이 지난 60년대 말, 이곳에 있는 바라크 대부분이 임대 또는 판매되었고 1971년 5월 4일 기념행사에서 막사의 마지막 부분이 철거되었다. 그 후 1983년, 베스테르보르크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다. 90년대 초반에 이 수용소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 재단장 되었다. 벽에 붙은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막사나 바라크는 이미 다 없어지거나 철거되고 오직 기념으로 하나의 바라크만 남겨졌다.

우리는 서점 한 편에 펼쳐진 예전의

‘전화번호 기록부’를 연상시키는 두꺼운 책을 통해 에디트 슈타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디트 슈타인 (Edith Teresia Hedwig Stein) 브레슬라우 1891년 10월 12일 아우슈비츠 1942년 8월 9일’

Neuss 15 september 1903 Auschwitz 17 september 1943	Bischhausen 2 Auschwitz 31 0
David Stein Amsterdam 23 april 1899 Sobibor 4 juni 1943	Klemens St Lemberg 9 jan Westerbork 25
Edith Teresia Hedwig Stein Breslau 12 oktober 1891 Auschwitz 9 augustus 1942	Kurt Stein Essen 22 april Auschwitz 30
Elchanan Stein Den Haag 5 juni 1911 Sobibor 16 juli 1943	Kurt Stein Berlijn 16 ma Mauthausen 3

백과사전처럼 얇은 종이에 크고 두툼한 이 책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라니. 책은 한 면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희생자들의 명단을 빼곡하게 적어 놓았다.

한 사람의 이승에서의 흔적이 가장 최소화되어 기록되어 있는 곳.

이름, 탄생일과 탄생지, 사망일과 사망지. 회원들은 그곳에 모여 성녀의 명단이 있는 페이지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서점 뒤 또 다른 공간에는 ‘은신처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인 배너가 세워져 있다. 은신처에 숨어서 지인이 찍어주는 카메라를 응시하였는지 젊은 두 남성의 얼굴은 편안하고 유쾌해 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들이 어렵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곳은 두 사람의 얼굴이 겨우 나올 정도로 작은 문틈이고 그나마도 뒤로 보이는 콘크리트 벽은 거칠고 좁다. 아마도 벽에 작은 틈을 두어 그곳을 은신처로 삼은 것 같다. 그 틈새 공간이라곤 있을 것 같지 않은 좁은 구조 안에 젊고 유쾌해 보이는 두 남자가 나를 향해 웃고 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릴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부터 파괴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을 향해 하느님께서 숨겨두신 하나의 열쇠다.

“바라크 64는 2009년에 완전히 불탔습니다. 원래 바라크 64는 병영 막사에서 일하는, 케이블 해체 작업장으로 지어졌으나 1943년에는 한동안 주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 대한 1944년도 봄에 촬영된 영상은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와 그녀의 언니 마르고는 몇 주 동안 이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캠프들과 마찬가지로 바라크 64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다가, 1957년에 매각됩니다.”

바라크 64에 대한 설명이다. 바라크 64는 안네 프랑크가 그의 언니와 한 달 정도 머물며 강제 노동을 했던 장소라고 한다. 안네 프랑크가 1942년부터 1944년 사이 은신 생활 중 썼던 ‘안네의 일기’는 2009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다. 부유한 그의 아버지가 네덜란드에 마련한 거의 완벽한 그 은신처가 발각된 것이 지인의 밀고였다니 인간의 탐욕과 시기의 끝은 있는 것일까? 서점에는 안네 프랑크 사진을 크게 인쇄한 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념관 안에 실제 크기로 그 당시의 목재 재료로 만든, 축사보다도 더 바람구멍이 많은 바라크74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기념관은 역사를 잊지 말라는 당부처럼 모든 시설물을 현재화해 놓았고, 흑백의 인물 사진들은 실사 크기로 관람객과 같은 공간에 서 있는 느낌을 주었다.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마주치고, 마주 보고, 함께 나란히 서 있도록 한다.

기념관 한쪽 또 다른 공간, 두 개의 커다란 벽체를 잇던 곳에는 흑백의 수많은 사진들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일반 가정집 벽에 걸려 있던 것을 그대로 떼어온 것 같은 사진들이다. 사진 속의 주인공

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장 빛나는 인생의 한순간이 영원처럼 담겨있는 작은 액자들.

집을 떠나야 했을 때 가방 안에 넣어왔을 그 액자들이 이제 모두 주인을 잃은 채 후세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공간에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씩 하나씩 빛을 내고 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고정된 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가슴에까지 전해오는 잔잔한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들... 이 흑백의 사진들이 주는 무언의 암시, 그것은 지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들이 웃는 모습 안에서 타인의 행복 또한 내 행복만큼이나 소중하고 우리는 그 행복을 지키고 보호할 공동의 책임 안에 있다는 연대 의식을 느끼게 된다. 순례는 그 연대감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룩한 행위이다.

기념관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마에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를 새기고 자신의 죄목을 새긴 커다란 판을 앞으로 맨 채 두 팔을 항복하듯 치켜든 나치 고위 공직자의 사진이 마케팅처럼 서 있다. 그의 복장은 한껏 멋을 부린 차림새다. 그는 이 명예와 부귀를 누리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 것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가난한 집시 여인이 그런 그를 보고 웃고 서 있는 사진이 같은 공간에 세워져 있다.

공간에 세워진 그 사진들 뒤로 보이는 벽에는, 끊겨진 두 줄의 철로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베스테르보르크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의 사진이 걸려 있다. 아우슈비츠의 철도가 워령 기념 구조물이 있는 길의 끝에서 두부 잘리듯이 뚝 끊겼다면, 이곳 베스테르부르크 철로의 끝은 끊긴 그대로 두 줄이 각각 하늘로 치켜 올려져 있다.

이 상징적인 철로의 사진 밑으로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인 당시 수용소 담당

나치 친위대 소령이 살던 주택 사진이 있다. 1994년 국가 지정 기념물로 등록이 된 이곳은 막사 수용소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있는 기념관에서 2.5km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수용소 터가 나오는데 그곳에 이 두 상징물이 있다고 한다. 그 수용소 터에 수많은 목조 바라크가 있었고 성녀는 그곳에서 바라크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셨던 것이다. 최근에는 수용소 담당 나치 친위대 소령이 살던 주택을 거대한 유리 상자로 감싸 마치 박물관 속 사료처럼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투명한 유리는 ‘아픈 눈물을 기억하는 소금 결정체’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이 베스테르보르크를 방문한 동양인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 나라 종전기념일이라는데 그래서 오늘 사람들도 많고, 이 기념관도 2시간 연장해서 문을 연 것입니다. 우리는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념관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가이드 형제님의 설명이었다. 사실 이 기념관이 오후 5시 정시에 문을 닫았다면 우리는 10여 분 차이로 닫힌 문만 두드리다

가 올 뻔했던 것이다.

즐거운 음악회라도 가는 듯이 보였던 사람들은 종전 기념일을 맞아 수용소 터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는 십만 이천 개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일정의 시간 제약으로 그곳에 직접 가볼 수 없음이 아쉽기만 하다.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들이 세워둔 수많은 다른 기념물도 궁금했다. 우리는 수용소 터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끼 낀 깊은 숲속을 10 여분 정도 걷고 나서 아쉬운 발길을 돌려 버스로 향했다.

기념관에서 가져온 팸플릿에는 이곳은 지금까지도 그때 현장에 대한 기억들을 수집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잘못된 역사를 잊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타인에게 고통을 안긴 행위 안에는 그것이 균중적이고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책임에서 예외이지 않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사춘기 시절의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인생의 좌표를 정했을 때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우리는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가르멜 트랙 *

Camino: A Walk with Jesus (2)

이 스킨라스티카/ 남가주 성요셉 공동체

300개 이상의 본당에서 2,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즐겁게 그러나 시끄럽지 않게 길을 걷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던졌다. 특별히 이 순례길은 도심에 관통하는 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긴 행렬이 궁금하여 지나가던 행인들은 멈추어서 한동안 긴 행렬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무엇을 하나요?” 하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나도 그분을 아는데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순례자들과 행인들은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곤 하였다. 끝이 안 보이는 행렬, 중간중간 솟아있는 깃발. 그 속을 걷고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평온하고, 미소가 있으며, 행복해 보이는 이들이었다.

도로의 한쪽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중간중간을 막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토바이 경찰들이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함에 따라 2 천명 이상의 신자들이 무리 없이 길을 걷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 우쿨렐레를 켜면서 가는 수도자들, 기도를 하면서 걷는 그룹, 십자가를 들고 가는 사람, 배너를 들고 가는 사람,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 예수님, 성모님, 성인들의 성화를 들고 가는 사람, 지팡이를 의지하여 걷는 이들, 아이에게 목마를 태우고 걷는 아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 등 각양각색의 하느님의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날씨도 한몫을 했다. 긴 팔을 입고 걸어도 덥지 않을 정도의 온도

였으며, 간간이 부는 바람은 어쩌다 몽글몽글 솟아나는 땀을 적절히 없애주었다. 차를 타고 바쁘게 지나다니던 길을 걸어서 갈 때 보이는 새로운 것들, 우리 삶 안에 드러나지 않게 자리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 너무 사소해서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만나는 시간들이었다. 소화 데레사가 말하는 장미꽃만이 아니라 하잘 것 없는 들에 핀 들꽃들을 만나는 순간들이었다. 그 하잘 것 없는 들꽃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람들 사이에는 성인 성녀들의 유해도 함께 걸었다. 성녀 마더 데레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 주니페로 세라, 성녀 프란시스 카브리니와 베트남 성인들의 유해였다. 그 유해들은 순례자들과 함께 걸었고, 순례 도중 멈추어 쉬는 3곳의 성당에서는 제대 위에 올려져 순례자들을 기다렸다. 순례자들은 그 유해

를 만지면서 기도하고, 전구를 청하기도 했다. 지상교회, 단련교회*, 천상교회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연옥의 영혼을 구하고, 성인들의 전구로 우리가 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인들과 함께 걷는 순례의 여정은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임을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임을 다시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혼자 하는 기도이든, 함께 하는 기도이든 기도의 힘을 믿으면서.

순례 중간 방문했던 3개의 성당(All Souls Church, All Saints Church & Our Lady Help of Christians Church)에서 순례자들은 본당 신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각 본당의 신자들은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당 진입로에서부터 미리 안내판과 깃발들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순례자들을 성당으로 안내하고, 물, 에너지 바, 과일 등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성당 마당의 무대 위에서 성가를 부르는 등 많은 이들이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었다. 앉아서 음식을 먹고 쉴 수 있는 벤치와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었다. 30분 정도 쉬어가는 시간에 순례자들은 감실 앞에 앉아 조배를 드리기도 하고, 화장실도 들르고, 다리를 뻗고 잔디밭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반가운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는가 하면, 처음 방문하는 그 성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미소와 웃는 얼굴이었다.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면 더욱 행복한 사랑이 된다. 바오로 성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합니다” 라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순례 중에 우리는 또 다른 순례자를 만난다.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윌리엄을 만났다. 친구가 뇌암으로 작년에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같이 걸겠다고 해서 함께 참석했다고 했다. 그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순례의 여정에 참석을 했을까? 그 친구를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성모님께 부탁드렸다. 윌리엄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팬데믹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아이들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지만 집중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폭력적이 되었다고 했다. 어른들도 간헐 지내는 시간들 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한참 뛰어놀고, 온몸으로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아이들이 작은 공간들에 갇혀서 오직 전화기, 컴퓨터 같은 스크린과의 싸움밖에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일까? 거기에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이것저것들에 대한 “NO” 는 아이들을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도 고달프다. 그러기에 부모들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야하는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시대이다.

Cathedral High School에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해준 점심 박스에는 샌드위치와 쿠키 그리고 과자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 치킨, 야채, 햄 등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가 있어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도 누렸다. 학교 운동장의 벤치에 앉기도 하고, 운동장 바닥에 앉아서 점심을 펴놓고 행복을 만끽했다. 우리 4명의 재속회원들은 같이 모여, 기분 좋게 점심을 다 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정확교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보고, 학교 운동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누구지 하고 고개 돌렸다. 회사 동료(Lorena)였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회사는 3월 말부터 재택근무 체제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재택근무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진 2021년 하반기부터 회사로 다시 돌아간 부서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완전히 재택근무를하기로 결정이 됐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회사 동료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난 것이다. 특별히 그녀는 2년 전 당시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하고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한국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본다고 했었다. 아들이 보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온 가족이 함께 드라마를 본다고 했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는 매일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이 무엇이고, 가수는 누구이며, 어떤 배우를 좋아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다. 그래서 나와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가족들이 모두 왔다면서 나를 데리고 가족들에게 갔다. 2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있었고, 남편과 딸도 만났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아들이 찍어주어서 사진에 아들은 빠졌다). 물론 잊지 않고 한국말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는 서로가 신자인 것을 그날 알았다. 예수님 때문에 몰랐던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 Lorena는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가깝게 내게 다가와 있다. 우리가 그분 안



Lorena 가족과 함께

에서 함께 하기에.

그날 집에 와서 회사 매니저에게 Lorena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다. 아르메니아 사람인 회사 매니저 Krisitine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운 간단한 한국어를 나에게 사용하곤 하는 사람이다. 물론 한국어 발음대로 영어로 표기한다. 그러나 단어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여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웃게 만들기도 한다. 사진을 받고 너무 놀란 그녀는 chincha(진짜) yeppuda(예쁘다) daebak(대박) 하면서 답장을 보냈다. 한국문화의 대중화를 외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3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어로 말하고, 우리와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본다. 하느님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니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하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뜻밖의 상황을 펼쳐 놓으신다. 그 미소와 사랑에 어찌 미소로 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순례의 마지막은 주교좌 성당이었다. 유럽의 많은 성당들이 강을 따라 자리하고 있듯이 천사들의 모후 주교좌 성당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 도 101번 프리웨이를 강으로 상상하고 프리웨이를 따라 설계된 현대식 성당이다. 성당

마당은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도심 속의 휴게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넓은 광장에는 군데군데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북미 대륙의 주보이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 앞에는 신자들이 봉헌한 수많은 초들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있다. 성당 안에는 전 세계의 성인 성녀들의 타피스트리들이 성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걸려있다. 그중에는 한국의 성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름 없는 12명의 성인 성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안에서 성인 성녀로 살아가지만 교회에 성인 성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간 평범한 일상의 성인 성녀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들 중의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치 성녀 소화 데레사가 자신의 삶 안에서 큰 성녀가 되기를 소망했듯이, 우리 모두도 오늘 주어진 내 삶 안에서 성인 성녀가 되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순례를 마친 모든 순례자들은 성당 입구에 모였다. 성당 문은 닫혀있었고, 순례에 함께 참석한 대주교님이 제의를 입고 무사히 순례를 마친 이들을 환영하였다. 잠시 후 성당 정문이 열렸고 십자가와 초를 든 복사들을 앞세우고 주교님을 위시해서 순례자들이 성당으로 들어섰다. 자리에 앉아 참석한 모든 순례자들이 아무 탈없이 무사히 순례를 마침에 감사하고,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하루를 마쳤다.

꿈같은 하루의 순례를 마쳤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의 성지를 가지 않고 엘에이 도심 한가운데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보 순례를 마쳤다. 나이를 먹어감에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참으로 귀하게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 은

총일 것이다. 우리의 사모 예수의 데레사는 일생동안 참으로 길고 먼 길을 다니시면서 17개의 수도원을 창립하였다. 그것은 창립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었다. 내가 오늘 걸었던 그 순례의 길은 내 삶의 한순간 창립이고, 내가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내가 걸어가는 끝없이 연결되는 순례의 여정에는 나를 그 길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다듬어 주는가 하면 또한 다독겨려주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들이 함께한다. 그런 사랑들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

가르멜 성모님의 망토 안에 함께 하는 여정, 내 어깨를 잡아주는 든든한 요셉 성인의 손, 교회의 딸이라고 용기를 주는 사모 예수의 성녀 데레사, 우리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부 십자가의 성 요한, 일상의 작은 것에서 나를 훈련시켜가는 성녀 소화 데레사, 삼위일체께서 고개 숙여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하는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매일의 삶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성녀 에디트 슈타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이 복된 순례의 길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와인 잔을 들고 함박웃음을 웃으면서 예수님과 건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해본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왔다.*



* 가르멜뜨락 *



아렴꽃이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테레사 공동체

투명한 유리컵의 모래시계에 미세한 분말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시간은 가느다란 물길을 생성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이라는 시원을 찾아 맑고 고요하게 숨 쉬는 연습을 하노라면, 모래 사이에서 퐁퐁 물방울이 솟아오르고 아름다운 생명을 간직한 계절은 더욱 깊어갑니다. 손가락 길이의 작은 모래시계의 생애는 삼분입니다. 마치 고운 백설탕의 달콤함처럼 기쁨은 잠시 다녀가는 손님입니다.

묵상 시간을 가늠하려고 다소 묵직한 모래시계로 바꿔 놓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흘러내리는 고운 가루가 물줄기 되어 흐릅니다. 하얀 가루는 조금씩 쌓이며 작은 언덕을 이룹니다. 사르르~사르르 사락 나뭇가지에 얹힌 서설(瑞雪)이 살포시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은 산이 되어 점점 높아갑니다. 어느덧 물줄기는 폭포수가 되어 우렁우렁 장엄한 낙차 소리를 내며 힘차게 떨어집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절반을 넘어 모래시계는 멈춰있습니다. 모래가 정지된 순간, 삼십 분이란 시간도 멈췄습니다. 짠맛의 소금처럼 아리고

쓰린 비통의 시간은 오래 머무는 불청객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세상사에 든든한 위로가 되어 주었던 모레나 언덕이 모래시계에 새겨 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시시각각 모양이 변하던 경이로운 모래 산이 저만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사막 한가운데 숨어있던 모래 언덕과 햇살에 수없이 반짝이는 푸른 호수의 윤슬, 모래 산의 자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던 맑은 호숫가에서 먼지를 씻고 세수하던 청량함이 손짓합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이 하늘과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는 시인의 마음처럼 맑은 호수에 영혼을 씻으려 먼 길을 떠납니다.

나그네 여정에 작반(作伴) 되어 잠시 동행하는 만남과 이별 사이, 마주 봄은 영혼의 양식이 되어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마주 보는 현존이라는 것을. 검색된 사진으로만 미루어 짐작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미소와 선한 모습을 직접 마주 대하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현존을 아렴꽃이 깨닫게 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현존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사랑초서 하나씩 마음에 새겨 봅니다.

‘늘 한결같은 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가르멜 정원 안에서 한 송이 꽃으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을 머금고 아름답게 현존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 안에서 뵈오며 가르멜의 유대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받습니다.’

‘늘 가르멜 여정에 동반자로서 함께 현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가르멜의 꽃씨를 뿌려주셨던 그 첫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기쁘게 봉헌하고, 응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과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우리의 내적인 시선과 현존을 한결같이 유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엔 구름에 달 가듯이 하얀 태양이 구름바다를 흘러갑니다. 어디선가 부르는 아련한 소리를 따라갑니다. 호숫가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 님의 뒷모습, 늘 한결같은 사랑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없이 물동이에 만년설이 잠긴 시린 호수를 담아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이제 아렴풋이 알 듯 말 듯 한 님의 현존에 마주 뵈고 싶은 그리움이 먼저 하얀 쪽배를 띄웁니다. 때때로 거센 풍랑에 휘말리지만, 어둔 밤바다에 별이신 어머니와 낮달 되어 안내하시는 요셉 아버지 보호 아래 먼 바다를 끊임없이 향해갈 것입니다. 곁에서 뱃고물을 베고 곤히 주무시는 님의 현존에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사오니, 천상 식구 마중 나오실 고향 나루터에 다다를 때까지 이어질 나의 뱃노래는

*날 먼저 사랑하신 주는 사랑 받기 원이시라
내 가슴이 숨 쉬는 만큼 주님 사랑하리라.**

* 가르멜 트랙 *

오두막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흔히 신비체험을하기를 원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미사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음을 하는 나날을 지나다 보니 그건 그래서 그렇고 요건 요래서 요렇다는 뚝 부러지고 명쾌하게 주님을 느끼고 싶어진다. 몸과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꺼내 볼 나만의 통장에 간직할 거리를 원한다. 별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고 위대하며 기적 같은 소중한 보물인지를 옆에서는 강조하지만 알고 싶지가 않다. 하여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 보아야겠다.’ 고 이 모임, 저 모임을 기웃거리본다.

그럼에도 그날이 그날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이 시대의 우리는 참으로 눈 뜨고 귀 열고 살지만 눈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다스리지 못한 감정으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며 가슴만 친다.

남너로 가르고 세대로 가르고, 이렇게 저렇게 갈라치고. 눈만 뜨면 편 가르다 못해 꽤거리까지 만든다. 나만이 선이고 나와 다른 너는 악이라 이름 짓고 분노한다. 인간관계에서 독이 되는 분노로 내 편끼리만 옹골지게 살겠다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우리가 몇십 년간 받은 교육의 하나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하는 토론의 의미를 내동댕이치니 말의 품격은 멀리 도망갔고 주님께서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평범한 진리 역시 떠나보낸다.

지인이 신부님의 추천이라며 신앙의 눈으로 보는 영화 “오두막”을 보기를 권한다.

미중서부에 사는 아일랜드계 농부인 아버지. 손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성실한 농부의 집안이지만 술만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맥은 아버지를 증오했다. ‘엄마를 보호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상처 투성이의 몸과 마음을 이웃의 아주머니가 달래어 준다. ‘하느님께 말씀드려라. 늘 듣고 계시니까.’

성장하여 크리스찬인 아내를 만나서 교회에는 건성이지만 1남 2녀의 착실하고 사랑으로 따뜻한 아빠가 된다. 어느 날 3남매를 데리고 야외에 나간 ‘맥’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혼란 속에서 귀염둥이 막내딸인 미시가 유괴범에 의해 오두막에서 살해된다.

그 후로 이 가정은 ‘내 탓으로 막내 미시가 죽었다.’ 고 자책하는 온 가족의 슬픔으로 엉망이 된다. 깊은 겨울이 되고 그때 그야말로 눈으로 하얀 설국에 발자국 하나 없이 주소만 적힌 초대장. 우표가 붙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날라 온다. 아빠 ‘맥’은 홀린 듯 ‘미시’가 살해되었던 그 눈 덮인 오두막으로 향한다. 그리고 하느님 “파파” (그 옛날 어린 시절 늘 위로가 되어주던 옆집 아주머니가 분장 《扮裝》한다)와 예수님으로, 또 성령으로 상징되는 사라유 세 분의 삼위일체를 만나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의문시되었던 여러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왜 하느님은 가족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술주정뱅이인 아버지를 막지 않으셨는지.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살인자를 벌하지 않으신지.

‘파파’는 이렇게 설명하신다. 아버지인 ‘맥’이 두 자녀가 전혀 다른 성품을 가졌다고 어느 누구를 더 예뻐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듯이, 하느님 당신도 그러하다는 것을. 아버지 ‘맥’이 3남매 모두에게 모든 사랑 전부를 주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는 그 깊고 넓은 사랑으로 어느 영혼이나 심판을 아니 하시고 인내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두막’의 예수님은 ‘맥’에게 물 위를 걷는 법도 가르치신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혼란 등 분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깊은 심호흡을 하고 주님인 나를 바라보아라. "Look at me"

이 세상에 살며 신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는 한 악도 그 빈틈을 파고든다는 것. 신은 이렇게 악의 장난에도 이를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엄청나게 큰 비극일지라도 그보다 더 좋고 뛰어난 것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맥’이 아버지를 만나 화해하고 미시가 행복하게 천국에서 지내는 것도 바라본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것을 깨닫고 보고 체험하는 시간은 교통사고로 잠깐 동안 병실에서 혼절한 사이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어린 시절 옆집에서 파이를 구워 주며 상처에 약 발라주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등불을 켜주던 이웃의 평범한 아주머니는 우리의 하느님이시었고 비극의 현장이었던 오두막도 행복한 선율이 흐르는 향기로운 동산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인 것이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함

께 계시는 그분을 믿고 진정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나는 변화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시사해 준다.

이렇게 혼돈으로 엉망으로 뒤엎겨있는 하느님의 정원!! 그럼에도 하루하루 기다리고 가꾸어 땅을 고르고 뿌리 깊은 악도 캐내 버리고 선(善)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자라서 튼실한 나무로 그늘을 만들며 새들이 깃드는 우람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여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감사의 맘으로 노래를 편다. 서로에게 꽃이 되고 나비가 되니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을 기뻐한다. 그럼에도 다시금 저녁에는 별일도 아닌 일로 다툼을 했음을 성찰하게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습관적으로 서툴고 약빠른 나는 그분께 능청맞게 기도한다.

주님 사랑으로 또 다시금 용서하시어요!!!

로마 12,1-2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은 조급함이 없고 크게 자라나며 꽃이 피고 나비가 즐거움의 정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신다.

그분과 함께 하는 진정한 너의 모습을 놓치고 마는 것을. *

* 가르멜 트랙 *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반숙자(성 요셉의 벨라벳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낮에 손님이 와서 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가슴에 쌓인 게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삼십 년 묵은 이야기부터 요즘 느끼는 허망감까지 한국 여인의 소망과 허탈을 들으며 금쪽 상담소 소장의 해안을 부러워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온 처지여서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선부른 조언은 삼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미묘해서 자칫하다가는 원망을 듣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니까요.

손님이 돌아 간 그날 밤, 나는 뒷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각선으로 마주 보이는 뒷동의 어느 창문을 또 하염없이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그 창문에 불빛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 어느덧 기도가 된 세월이 스무해가 넘습니다. 다시는 바라보지 말자 해도 습관이 되어버린 나의 감각은 불빛을 확인해야 잠자리가 평화롭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사는가요?

시골 초등학교 6학년, 70명의 여학생들이 교탁을 향해 앉아있습니다. 이십 대의 여교사는 열성을 다해 수업을 합니다. 50년 세월입니다. 그 가운데 몇 제자는 지금까지 곁에서 제자로, 대녀로 때로는 딸로 살고 있으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중의 한 제자가 뒷동에 삽니다. 우리 집 현관 키도 알고 내 생일도 챙겨주는 마음씨 따듯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 제자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서로 오가는 정이 도타우니 가끔

은 농담도 하고 생떼도 쓰며 옥신각신하며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조출한 모임 자리에서 우리 사이를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다 좋은데 잔소리가 많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 나는 제자네 집 창에 불빛이 있어야 단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색을 하며 자기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아냐고 대답합니다. 아차 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제자를 아끼고 보호하고 있다는 너스레였는데 당사자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멀어졌습니다. 집까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공 없는 빈 배가 되어 물결 따라 긴 강을 오르내립니다. 손님은 떠났는데 기다림은 남아서 하염없는 세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회가 클수록 침묵의 귀중함에 대해 다시 잠겨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날 한 마디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충주 가르멜수녀원으로 월모임을 다닐 때 가깝게 지내던 자매님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8절지 백지에 “침묵의 귀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여섯 단락의 글입니다. 코팅까지 해주어 가까이 걸어두고 읽어보는 글입니다.

침묵의 귀중함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하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길 때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침묵은 자비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를 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바로 자비입니다.

침묵은 인내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트는 것을
기다릴 때
바로 침묵은 인내입니다. (중략)

사랑하는 제자에게 상처를 주고 기도를
한들 얼마나 하늘에 올라갈까요? 이웃에
외로워하는 노인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다
고 찾아보지 않고 냉동고에 식재료가 있는
데도 자칫하다가는 주고도 욕먹는다고 나
뉘 먹지 않습니다. 가급적 신경 쓸 일 안
만들고 좋은 게 좋다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요. 코로나 사태 이
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온 날은
내장이 다 빈 것 같아서 불면이 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오로지 자신만 위해 하
루 24시간을 바칩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 앞에 항의를 하는 날
도 있지요. ‘주님, 아시겠지만 저도 나이
를 먹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거든요.
이웃을 돌보고 다독일 여력이 없는데도 마
음은 늘 미안하고 불편해하니 이것은 저의
교만인가요? 제가 제자네 창문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 여겼는데 당사자
에게는 간섭이나 집착으로 느낄 수도 있겠
다는 걸 이제야 깨달아요. 독선인가요? 주
님! 좀 봐 주세요, 제가 실수도 잘하고 실
언도 잘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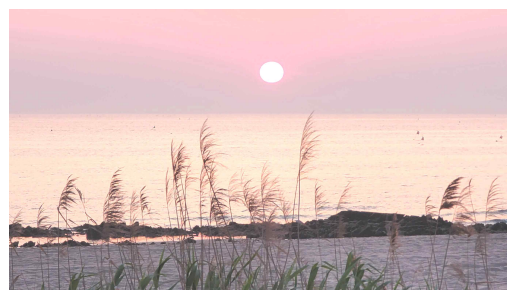
도 바로바로 참회하고 고하오니 용서를 청
할 용기를 주세요. 저는 당신 앞에 반푼이
딸임을 고백합니다.’

침묵은 겸손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 때
하느님 선물이 감추어졌을 때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든 어떻든 내버려 둘 때
침묵은 겸손입니다.

침묵은 신앙(믿음)입니다.
그분이 행하도록 침묵할 때
주님의 현존에 있기 위해 세상 소리와 소
음을 피할 때
그분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바로 침묵은 신앙입니다.

침묵은 흠숭입니다.
‘왜’ 라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포용할 때
바로 침묵은 흠숭입니다.

오늘도 반푼이 딸은 신날 것도 없는 세
상에 떡구름 속에 드러나는 푸른 하늘을
반기고 혼자 세수하고 밥 지어 먹는 기쁨
을 누리며 감사로 삽니다. *



* 가르멜 트랙 *

농부의 마음

안병희(아기예수의 썸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농사짓지 않는
산까치 보며
콩알 하나 더 심는다

땅속만 뒤지는
곰뽕이 생각하며
감자 두알 더 심고

개구쟁이
옆집 아이 보며
옥수수 세알 더 심는다

농부아저씨
고운 마음을
실바람이 보았네
보슬비가 보았네
해님이 보았네



2022년 10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제41장 해설:

사랑의 쌍둥이 형제인 경외심

기도의 여정에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뒤에는 “경외심” 이 동반자 또는 선의의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른다.

여기서 우리는 “경외심(temor)” 은 성서적인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혜 문학서를 보면 ‘경외심’ 은 “지혜의 시작” (지혜 1, 7; 9, 10)이라 불린다. 이 ‘경외심’ 은 『완덕의 길』의 파노라마에서 “두려움(miedo)” 과는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

성녀는 본 장에서 이 둘 모두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는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그분에 대한 참된 경외심이며, 다른 하나는 그분을 쫓아 버리는 두려움이다. 기도하는 이 안에서는 점차 경외심이 자리 잡는다. 그것은 결코 희석되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반면, 모든 두려움은 점차 사라져 버린다.

“사랑” 과 “경외심” 은 『완덕의 길』에서 제시되는 마지막 덕행들로서 기도 여정을 비롯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 마지막 덕행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느님에 대한 감각” , 즉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잃어버릴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1. 생겨나고 성장하는 경외심

경외심은 사랑과 더불어 생겨난다. 사랑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커다란 불길” 이 되기까지 성장한다. 기도하

는 성인(成人), 더 나아가 관상가에게 있어서 경외심은 보다 견고하고 분명해진다.

사랑이 성장할수록 경외심은 커 간다. 즉 이 둘은 서로 비례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세련되게 되고 정제된다.

“영혼이 벌써 관상에 도달하고 보면,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랑 못지않게 아주 돋보이게 되어 겉으로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1절).

“죽을 때가 되어서 우리가 만유 위에 사랑한 주님께 심판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빛을 다 갚고 가는 길은 홀가분할 것이오니, 그것은 낮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는 본고장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완.마 40, 8).

성녀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썼다.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았 습니다.” 성녀는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했다. “주님의 지엄하심을 뵈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첫 감정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에 관한 것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당신께 사될 수 있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주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한층 더 강하게 남 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은 벌이 무서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때위 두려움은 주님을 잃을까 염려하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궁 7, 3; 자 37, 6).

당시 성녀의 영혼에서는 이미 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 이전까지 성녀는 주님을 모욕해 드리지 않을까 하는 아주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잃을까 염려하는

두려움”이었다.

2. 진정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녀가 향주적(向主的) 삶에서 가졌던 사랑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을 모욕할까 또는 잃어버릴까 아니면 그분의 사랑 없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경외심은 마치 사랑의 메신저처럼 작용한다. 또한 선과 악 사이를 식별할 수 있는 감수성을 보다 날카롭게 해 준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도 섬세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기도하는 이로 하여금 죄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 “이렇게 짓는 죄가 어찌 가볍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 허물이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이만저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절).

경외심의 반경에는 경계, 일대 결심, 대담함, 자유 등이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경외심은 “지극한 조심” 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vigilantia)라는 불꽃을 북돋아 준다. “이 사람들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죄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쁜 동료들을 멀리 합니다”, “비록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방심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녀는 일대 결심을 경외심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 번 죽을 지언정 대죄 하나를 범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지 않겠다는 굳센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담함과 자유도 경외심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된다. 하느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한 자유와 더불어 견게 해 준다.”

나아가 경외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해 신비스러운 예방법을 활용하게 해 준다.

반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 방식은 사랑처럼 역동적이고 비옥하다. 또한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화적(淨化的)이고 위력적이기까지 하다.

3. 경외심은 지녀야 하지만

두려움은 갖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현존과 초월 그리고 거룩하심과 권능 앞에서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공포와 매혹” 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하느님을 뵈고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탈출 33, 20).

테레사 역시 “하느님의 장엄하심” 앞에서 “놀라움” (자 37, 6)과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자 38, 19) 체험을 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체험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는 결코 두려움으로 인한 일말의 떨림도 없었다.

성녀에 따르면 ‘두려움’ 은 “원기가 의기소침해지고 곤궁해지는 상태” 를 의미한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 앞에서 “접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 것” 을 뜻한다. 정확히 말해 그것은 “성성(聖性)을 얻으려 노력하는 대신 불완전함들이나 꼬집어내게 만듦으로써 영혼이 구석에 처박히게 만드는 것” 을 말한다.

두려움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퇴화된 것이다. 따라서 기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근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혼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무능하게 만든다. 나아가 영혼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질식해서 죽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거룩한

자유”(6절)를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하지도 못하게 한다.

성녀는 수년간 싸워야 했던 특별한 두려움에 대해 상기했다. 그것은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성녀의 말에 따르면 “판단력을 잃게 할 만한”(자 28, 18) 이런 단호한 진단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데레사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마에 대해 남아있던 일말의 두려움까지 다 없애 버리는 데 성공했다. “종종 갓곤 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데레사는 “지옥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자 25, 20) 더 소죄 하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성녀가 지금 『완덕의 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버린다. “주님의 종이자 노예인 악마들을 묶어 놓기 위해 주님을 모욕해 드리지 않는 것은 장한 일입니다”(2절).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보증은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 간직하고 계신 사랑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 때 저들은 별도리가 없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 하거나 암계(暗計)를 써서 우리를 들이칠지라도 우리를 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상동).

4. “보다 거룩할수록 보다 불임성이 있다”

성녀는 최종본(바야돌리드 본)에서 ‘경외심’이란 주제가 기도하는 이의 ‘친절함’ 그리고 하느님의 ‘관대하심’을 간직한 후기와 함께 끝나기를 바랐다.

이미 성녀는 이전에 ‘기쁨’과 ‘거룩한 자유’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 둘 역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짝에서 꽃피는 것이다. 이제 성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영의 기쁨’과 ‘자유’만이 다가 아니라고. 거기에 더해 “친절함”과 “불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톡톡 쏘기만 하

는 덕(德)은 덕이 아니다.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교제하는 모든 방식”처럼, 덕이 진정 덕이 되려면 끌어들이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덕은 다정하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되도록 매사에 친절과 이해로써 사람들을 대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누구나가 여러분과 사귀기를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생활과 행동을 본떠서 도 닦기를 꺼려 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7절).

“수녀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만치 자매들과 불임성이 있어야 합니다”(상동).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자매들을 그저 상냥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대해 주도록 힘쓰는 일입니다”(상동).

늘 그랬듯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높은 차원에 있다. 즉 하느님께서 그러시듯,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는 말이다.

“나의 따님들이여, 진심으로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으십니다”(8절).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성녀가 『자서전』에서 말한 바 있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벗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아주 좋은 친구이시다. “오, 하느님! 당신은 그 영혼에게 얼마나 좋은 벗이 되어 주시는지요! 얼마나한 은총을 아낌없이 그에게 내려 주십니까! 그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깊으신 인내! 당신은 그 비천한 신분을 참아 보시는 너그러우심을 보이면서 그가 스스로 당신 지위에 맞추기를 기다리십니다”(자 8, 6).*

-가르멜 총서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수도회 소식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일시: 9월 16일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6), 8월은 쉽니다.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셋째 주 금요일에 합니다.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야고보, 골롬바노, 예레미야 수사님 귀국

야고보, 골롬바노, 예레미야 수사님이 재속회원분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의 안식년과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수사님들이 한국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수도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사님들이 머무실 공동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 수사님: 인천 수도원

골롬바노 수사님: 광주 수도원

예레미야 수사님: 마산 수도원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가르멜수도회 상설고해소

일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8/2, 8/16) 오전 10-12시, 오후 2-6시

장소: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성시간

- 2022년 8월 30일(서 마리아 꼰베 신부 지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 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재속회 소식

2022년 한국관구 참사회 교육

6월 27일~29일, 7월 7일~9일,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총회준비-3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한국관구 참사회 교육(1차, 2차)이 있었습니다.

관구 참사회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 방문

관구 참사회는 2022년 6월 ?일 관구장 신부님을 모시고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당장 재건축을 요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대전 가르멜 수녀님들을 만났습니다. 재속회를 기도로 후원하는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경축

* 서울 성 시몬 스투 공동체



- . 날짜: 2022년 6월 26일
- . 회원: 김자선 아기예수 데레사의 엘리사벳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하명숙(아기예수의 데레사)
 - . 선종일: 2022년 7월 16일(향년 83세)
 -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최영숙(예수마리아의 안젤라)
 - . 선종일: 2022년 7월 3일(향년 85세)
 -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이영태(예수의식과 성체의 바오로)
 - . 선종일: 22년 6월 19일(향년 82세)
 -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이옥순 예수성심의 카타리나
 - . 선종일: 2022년 5월 21일(향년 97세)
 - .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은경축

*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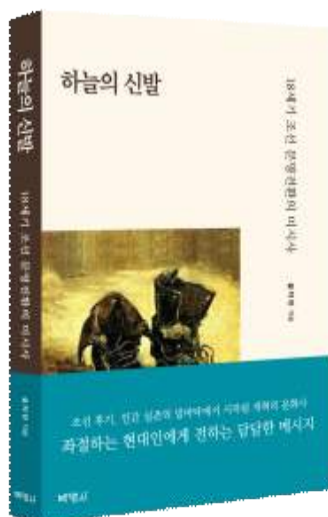
- . 날짜: 2022년 6월 20일
- . 회원: 나은희 가르멜성모의 에데레나

*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 날짜: 2022년 6월 15일
- . 회원: 김형숙 예수의 루시아
권옥자 예수성심의 실비아
이재순 예수성심의 엘리사벳

※ 정정: 7월 회보 37쪽 종신자 재교육(의정부 가르멜 수녀원)을 종신서약 축하식으로 바로잡습니다.
6월 회보 49쪽 종신서약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의 '박경순 성덕의 크리스티나' 는 대전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하늘의 신발

설지인 지음
(출판사 박영사, 정가 27,000원)

이 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외부에서 들어온 사상을 통해 새 시대를 바라고 구현했던 7인의 여정을 담고 있다. 이들 모두가 사학(邪學)의 괴수로 몰려 문중의 손에 죽거나 대역죄인으로 참수된 인물들이다.

책은 새로운 질서의 문을 연 이벽과 이승훈, 사회와 국가를 변혁한 강완숙과 황사영,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한 이순이·유중철 부부와 김재복(김대건 신부의 아명)의 삶과 그 사상의 가치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복원하고 있다.

저자 설지인(마리아 막달레나)²⁾은 각 인물들의 삶을 철저한 사료 고증을 통해 재구성하고 각 인물의 이야기를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간다.

글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이 조선의 혁신가들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화가의 눈과 그림 속 상징들의 힘을 빌려 그림보다 더 깊은 세계를 비추어보기로 한 저자. 그는 조선사 안에 숨어 있는 이 인물들이 일상에서 내린 선택과 투신의 보편성을 서양 화가의 붓터치를 가미해 동양 밖으로 끌어낸다.

저자는 “교회 안에서도 재복음화에 아주 티끌만큼이나 보탬이 되면 좋겠지만, 교회 밖 세속 안에 있는 영혼들에 뜻을 두고, 하느님을,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진리로, 교회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지향으로 글을 썼다” 고 전한다.

‘초불확실성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팽배해 있는 이 순간 책에서 소개하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로 우리의 미시사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일상 속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서문 중에서)

2)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회원



참사회 교육 1차



참사회 교육 2차



십자가의 성녀 테레사 베네딕다

“십자가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삼위일체의 품 안으로 믿음, 사랑, 희망 속에 십자가를 껴안는 이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 올림 받을 것입니다.”

- 십자가의 성녀 테레사 베네딕다 -